

다저스, 다르빗슈 영입... 류현진 무한경쟁 예고

커쇼·알렉스 우드와 함께 1~3 선발 한 축 담당... 남은 두 자리 놓고 4명의 선발 자원 경쟁 펼쳐야

LA 다저스가 텍사스 레인저스 우완 에이스 다르빗슈(31)를 영입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한 칼을 빼 들었다. 류현진(30·LA 다저스)은 또 한번 깊은 경쟁 속으로 들어갔다. 다저스는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현지시간 31일인 1일(한국시간)) 팀내 유망주 4위 내·외야수 윌리 칼홀 우완 투수 AJ 알렉스(17위), 내야수 브랜던 데이비스(27위) 등 유망주 3명을 내주고 다르빗슈를 데려왔다.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우승은 지난 1988년이 마지막이다. 그 사이 10차례나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월드시리즈 무대조차 밟지 못했다. 다저스는 올해 완벽에 가까운 투타 전력으로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을 거두고 있다. 그만큼 올해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한 적기라고 판단했다.



류현진(30·LA 다저스)은 또 한번 깊은 경쟁 속으로 들어갔다.



LA 다저스가 텍사스 레인저스 우완 에이스 다르빗슈(31)를 영입했다.

거르지 않고 있는 류현진으로서 다르빗슈의 영입이 발잡지 않다. 커쇼와 매카시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어 당분간 류현진에게 선발 등판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이들이 돌아오면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어떻게든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다행히 류현진은 후반기 2경기 등판에서 승패는 없지만 12이닝을 책임지며 평균자책점 1.50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7이닝 5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하며 복귀 후 최고 피칭을 했다는 점도 고무적

이다. 류현진이 앞으로의 등판 기회에서도 현재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커쇼와 매카시의 부상 복귀 후에도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선발 체제로 운영되는 포스트시즌에서는 강타하기 힘들다. 1~3선발이 건강하게 시즌을 소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자리는 후반기 안정된 경기력과 함께 포스트 시즌 경험을 가진 선수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류현진은 2013년 첫 포스트 시즌 등판에서 30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지만 그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챔피언십 시리즈에

서는 7이닝 무실점하며 만회했다. 이듬해 포스트시즌에서도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8이닝 1실점하며 통산 포스트시즌 3경기에서 1승 평균자책점 2.8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류현진과 비교해 겐타나 힐은 포스트시즌 경험은 있지만 성적이 신통치 않다. 매카시는 포스트시즌 경험이 전무하다. 따라서 류현진으로서 앞으로 선발 등판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선발 로테이션을 거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민근기자



김현수, 필라델피아 데뷔전 3볼넷 활약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이적 후 데뷔전에서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1경기 3개의 볼넷을 얻어냈다. 김현수는 1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बैं크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서 7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1타수 3볼넷 1삼진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떠나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 된 김현수는 이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홈팬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김현수는 타석에서 인내심을 발휘하며 이전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였다. 이는 기록으로 나타났다. 2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김현수는 애틀랜타 우완 선발 마커 폴타니비츠와 폴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으로 출루했다. 3회 1사 1루에서는 다시 한 번 폴카운트까지 승부를 끌고 갔고, 마지막 투수 패스트볼을 참아내며 공격 기회를 이었다. 5회 1아웃 상황에서 김현수는 바뀐 투수 루크 잭슨과 대결에서도 집점 끝에 6구째 볼을 골라 3번째 출루를 했다. 김현수가 1경기 3개의 볼넷을 얻어낸 것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이다. 김현수는 올 시즌 이날 경기 전까지 볼넷 12개에 불과했다. 컨택트 능력이 좋은 김현수는 그 동안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타격에 임했지만 이적 후 첫 경기에서는 3타석 연속 볼넷을 골라내는 등 뛰어난 선구안을 보여 주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필라델피아는 이날 경기에서 상대 추격을 뿌리치고 7-6으로 승리하며 5연승을 달렸다. 김현수를 데려온 클렌탁 단장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타석에서 김현수는 매우 뛰어났고, 인내심 있게 접근했다"고 호평했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0.232에서 0.230으로 소폭 떨어졌지만 이적 후 데뷔전 활약으로는 합격점을 줄 만 했다. /김민근기자

택시운전사, 예매율 1위 '흥행 예고'

예매 관객수 7만7754명 · 점유율 24.6%... '균함도' 제쳐

송강호 주연 '택시운전사(감독 장훈)'가 '균함도'를 제치고 예매 순위 1위에 오르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 7만7754명, 예매 점유율 24.6%(예매 매출액 5억8000만원)로 예매 순위 1위를 유지 중이다. 전날까지 박스오피스·예매 순위 모두에서 1위에 오른 '균함도'는 예매 관객수 7만125명(예매 점유율 22.5%)으로 한 계단 주저앉았다. '택시운전사'가 예매 순위 1위에 오르면서 사실상 '균함도'(7월31일 기준 453만명)

의 독주를 막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우 중 가장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가진 송강호의 출연은 물론, '균함도'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예상보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이 '택시운전사'의 흥행을 예상하게 한다.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서울 택시 기사가 독일에서 온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송강호가 택시 기사 '만섭'을 연기했고,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맡았다. 유해진·류준열 등이 출연했다. '영화는 영화다'(2008) '의형제'(2010)



국내 배우 중 가장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가진 송강호가 택시 기사 '만섭'을 연기했다. '고지전'(2011) 등을 만든 장훈 감독이 연출했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오늘 개봉한다. /뉴시스

JS컵 U-12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내일 평창서 개막

JS과운대이션(이사장 박지성)이 주최하는 '2017 JS컵 U-12(12세 이하) 국제 유소년축구대회'가 오는 3~7일 강원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최강의 축구 클럽, 강원FC, 울산현대 등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13개 유소년 축구팀과 태국, 일본, 홍콩 등 해외 3개팀이 참가한다. 경기는 조별 리그진행으로 진행되고 7일 열리는 결승전에는 박지성 이사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지난 2014년부터 평창군의 지원으로 4회째 진행되고 있다. 우승팀에는 200만원의 상금과 우승트로피가 주어진다. 출전한 모든 팀에게는 참가 지원금이 전달된다. 박지성 이사장은 "축구의 근간은 결국 유소년 축구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데 있어 유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